

# 아름다운 자연에서 소박하게 명작 감상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나무와 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낸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선교 사택 등 오래된 건물도 운치를 더한다. 옛 차고지를 리모델링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독특한 광주의 전시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술, 문학,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입주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역시 예술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들이 소박한 축제를 준비했다. 아트주의 후원을 받아 올해 처음 열리는 '호랑가시나무 숲속 영상제'가 19일~21일까지 3일간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야외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7시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영상제는 입주작가들의 퍼포먼스와 공연, 화제를 모았던 감독들의 데뷔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클래식 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입주작가들은 3일간 오프닝 공연을 선보인다. 김지희 작가는 해금 연주를 들려주며 구혜영 작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이다겸 작가는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9일에는 양익준 감독의 영화 '똥파리'를 만난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똥파리' 도발국제영화제, 싱가포르 영화제 등 국내외 수십개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주연배우로도 출연했던 양익준 감독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이후에는 마릴린 먼로가 주연을 맡은 빌리 와일더 감독의 '뜨거운 것이 좋아'를 상영한다.

20일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3명의 청춘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유연하고 사실감 있게 그린 김영남 감독의 '내 청춘에게 고향'을 상영한다. '내 청춘에게 고향'은 2006년 제5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넷팩상,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상영 후 김영남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날 만나는 클래식 영화는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뮤지컬 영화 '파리의 아메리카인'으로 진 켈리의 연기와 조지 거슈윈의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마지막날에는 현재 '프랑스 여자'로 주목 받고 있는 김희정 감독의 '설행-눈길을 걷다'를 상영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수녀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기생충'의 박소담과 김태훈이 주연을 맡았다. 이날 상영하는 클래식 영화는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다.

무료 관람.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19~21일 '호랑가시나무 숲속 영상제'

데뷔작·클래식 영화·관객과의 대화  
'똥파리' '뜨거운 것이 좋아' 등 상영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 공연



'뜨거운 것이 좋아'



호랑가시나무 숲속 영상제가 열리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



'설행-눈길을 걷다'

## '민화를 화폭에 품다'

'인송회' 첫번째 회원전  
26일까지 자미갤러리



박오순 작 '화병도'

소박하고 정감있는 전통민화를 만나. 민화모임 '인송회' 첫번째 회원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북구청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민화를 화폭에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선조들의 담백한 감성과 삶의 자세가 담긴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송회'는 10여년전부터 인송당 박오순 작가에게 민화를 배운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박 작가는 대한민국문화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전남도미술대전 서예 초대작가로 활동중이다.

회원들은 화조도, 장생도, 책가도, 모란도, 일월오봉도, 문자도, 봉황도, 연화도 등 다양한 민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 '화병도'와 십이간지를 소재로 한 '경자년(쥐)'를 찬조출품했다. 또 김인남 작가는 꽃과 어우러진 팔가지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한 '초충도' 8곡 병풍을 선보이고 있으며 박명화 작가는 글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문자도'와 '기명절지도'를 출품했다.

그밖에 배호순·문애리·신정숙·문애숙·안태영·최인화·위순미·임정미·정모은·양미진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62-410-6620. /김미은 기자 mekim@

## 광주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를 보다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 입주작가전, 오늘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다양한 매체 실험과 협업을 매개로 융복합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역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온 레지던스 작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18일부터 7월 8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새로운 공간 : The bunker'를 개최한다.

특히 특별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 전시공간이 눈길을 끈다. 기존의 문서 보관 장소 등으로 쓰였던 180평을 리모델링해 빛 차단이 뛰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 작가로는 지역 대표 미디어아티스트인 1기 권승찬, 박상화, 이이남, 인스토림(팀), 정은하, 진시영 작부터 9기 강수지, 김명우, 김형숙, 유지원, 이뿌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29명이다.

지하 1층에는 정선위의 '살 속의 풍경' 등 평면 5점, 권승찬의 '무릉도원' 등 설치 6점이 설치된다. 또한 이이남의 '박연폭포', 신도원의 '살이 꽃이 되는 순간'을 포함해 영상 16점과 임용현의 'Motion Flow' 영상 맵핑 1점이 전시되며, 이 중 16점이 신작이다. 미디어아트 작품의 세계와 최신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외부 전시는 공간의 실험적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마련됐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건물과 건물 사이 암벽공간에서 펼쳐지며 영상 맵핑, 긴 계단을 무수한 실로 감싸는 2개 작품으로 이루어진다.

2층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실에서는 인터뷰 영상이



권승찬 작 '무릉도원'

상영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작가들의 도록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작가들 인터뷰는 향후 코로나 19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이후 전계열 예술에 대한 작가들 생각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무료관람으로 시간당 최대 1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월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창조협력팀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